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5.(목) 11:00 < 1.6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5.(목)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	책임자	과 장 송현주 (044-203-4330)
		담당자	주무관 정희성 (044-203-4339)

2022년 국내 조선업, 고부가·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 1위 달성

- 18년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 37% 달성 -

- 고부가, 친환경 대표선박인 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 세계 점유율 70% 달성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'22년 한 해 동안 **전세계 발주량의 37%**인 1,559만 CGT(453억불)를 수주하여, **'18년도(38%)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**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.

○ 특히, '22년은 '21년 대비 전세계 발주량이 **22% 감소**하였으나, 국내 조선산업의 **세계 시장 점유율**은 지난해보다 **4%p 높은 37%**를 기록하였다.

○ 이는 지난해 **고부가·친환경 선박 분야**의 발주가 많았고, 우리나라가 동 분야에서 높은 **기술경쟁력**을 가지고 약진한 결과로 평가된다.

< 전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실적 ('23.1.4. 클락슨 통계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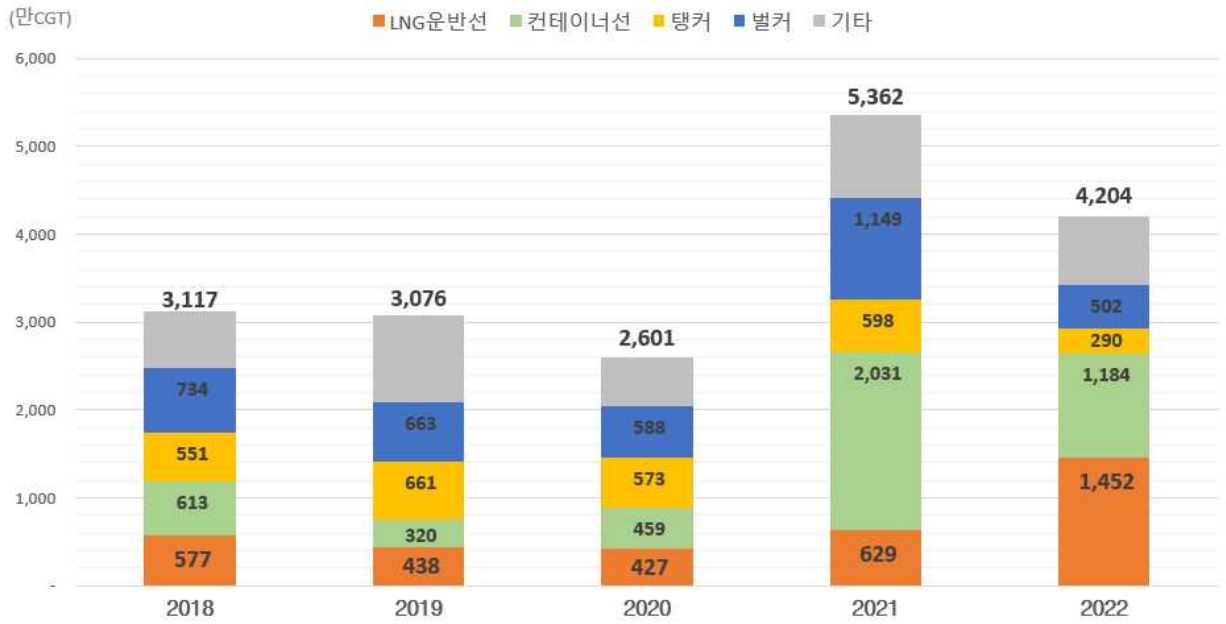


□ ’22년도 **전세계 발주량**은 **4,204만 CGT**로 코로나19로 지연된 수요가 폭증한 ’21년(5,362만CGT) 대비 **22% 감소**하였다.

○ **선종별 발주량**을 보면, 컨테이너선은 전년 대비 42%(2,031→1,184만CGT) 감소하였고, 탱커는 52%(598→290만CGT), 벌커는 57%(1,149→502만CGT) 각각 감소하였으나,

○ **LNG운반선**은 러-우 전쟁發 LNG 수요증가로 **1,452만 CGT가 발주**되어 **사상 최대**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’21년 대비 **131% 증가**한 실적이다.

< 선종별 전세계 발주량 추이 (’23.1.4. 클락슨 통계) >



□ 이러한 발주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**’22년 고부가가치·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**를 달성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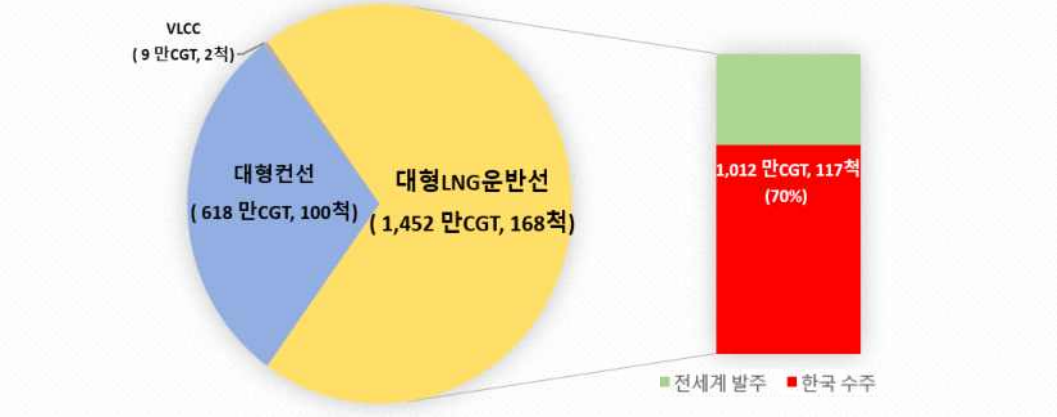
○ **고부가가치 선박***은 전세계 발주량 2,079만 CGT(270척) 중 **58%**에 해당하는 **1,198만 CGT**(149척)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였고,

* 대형LNG운반선(174k ㎥↑), 대형컨테이너선(1.2만TEU↑), VLCC(초대형유조선, 20만DWT↑)

- 특히, 최근 역대 **최고 선가**를 경신 중*인 **대형 LNG운반선**의 경우 **전세계 발주량** 1,452만 CGT의 **70%**에 해당하는 1,012만 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, **LNG운반선 1위 기술 강국의 면모**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.

* 클락슨 대형LNG운반선 평균 선가(백만불) : (’20.12) 186 → (’21.12) 210 → (’22.6) 231 → (’22.12) 248

< '22년 전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량> < '22년 대형LNG운반선 수주실적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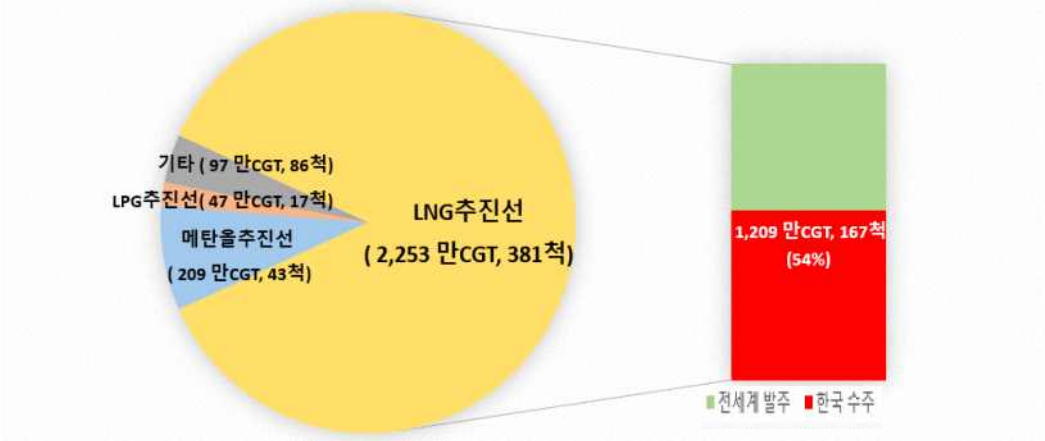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IMO **환경규제 강화**로 전세계 **발주 비중이 급증**('21년 32 → '22년 62%)한 **친환경 선박***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세계 발주량 2,606만 CGT 중 **50%**인 **1,312만 CGT**를 수주하여 전세계 **수주량 1위**를 달성하였다.

* LNG, 메탄올, LPG, 전기 등의 연료로 추진되는 선박

- 친환경 선박의 **추진 연료별**로는 우리나라 수주량 중 약 **92%가 LNG** 추진 선박이며, 뒤를 이어 메탄올 추진 선박 5%, LPG 추진 선박이 3%를 차지하였다.

- 특히, 친환경 선박의 대표 주자인 **LNG추진선박**은 전세계 발주물량 중 **54%**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여 **해당 시장 점유율 1위**를 기록하였다.

< '22년 전세계 친환경 선박 연료별 발주량> < '22년 LNG추진선 수주실적>



□ **기업별**로 '22년 실적을 보면, 우리나라 **대형 조선 5社**는 **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**하였다.

○ 먼저, **한국조선해양**(현대중공업, 현대미포, 현대삼호)은 239.9억불(197척)을 수주하여 목표(174.4억불) 대비 **38%를 초과**하는 실적을 거두었고, **삼성중공업**은 94억불(49척)을 수주하여 목표(88억불) 대비 **7%**를, **대우조선해양**은 104억불(46척)을 수주하여 목표(89억불) 대비 **16%**를 각각 초과 달성하였다.

○ 이러한 성과를 통하여 각 사는 **평균 3~4년치 일감을 확보**하였고, **클락슨 세계 조선사 순위에서 상위**('22.12월말 클락슨 기준)에 이름을 올렸다.

< 세계 조선사 순위 ('클락슨 통계, 22.12월말 수주잔량 기준) >

순위	국적	조선소	수주잔량('22.12월)		'21년 건조량		일감보유 현황(예상) (N년치=A/B)
			척수	만 CGT (A)	척수	만 CGT (B)	
1	한국	삼성중공업	149	1,019	42	247	4.1
2	한국	현대중공업	140	860	44	244	3.5
3	한국	대우조선해양	120	848	32	240	3.5
4	한국	현대삼호중공업	99	584	30	162	3.6
8	한국	현대미포조선	119	243	45	102	2.4

□ 한편, 산업통상자원부는 **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**를 위해 금년 **1,300억원**을 **조선 분야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**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.

○ 특히, **미래 선박시장의 기술 주도권 선점**을 위하여 암모니아 및 전기추진 선박의 추진 시스템 등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,

○ **LNG운반선의 기술격차 확대**를 위하여 **LNG 저장 시스템(화물창)의 상용화 및 극저온 펌프 등의 고도화**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또한 최근 개선된 수주물량이 차질없이 건조될 수 있도록 **국내 구직자 대상 인력양성사업**을 시행하는 한편, **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지속적 개선**을 통하여 **조선업 인력난 해소**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